

주간 총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택한 나의 그릇이라”(행 9:15)

장로·안수집사·권사 피택자 교육 시작

“내가 교회 일로 된 것은 하나님께 보답을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골 1:25). 지나온 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꾼 선출을 위한 공평의례를 위해 중재에 잘 마쳤습니다. 38대 장로 7명과 18대 안수집사 43명, 46대 권사 64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개교절기』를 공평의례를 통해서 공평하게 하지만, 주전승권을 통해서 대신합니다! 이 모든 일꾼들이 절정기까지 전 집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공평의례를 통한 전 성도의 참여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꾼으로 선출된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마 16:24)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순종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부촉합니다.

이런에 세움을 받은 일꾼들은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되었지만, 이제 이 분들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피택자 교육의 조처는 매우하나 지식을 쌓는데 있어 아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살전 3:2)으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으며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지는데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뱀 봉황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 가 대가 없이 빌라 뱀 두루와일"로(전 9:27)의 말씀처럼 이들은 더욱 자기 자신을 깨고, 부자는 훈련(부전 15:33)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10월 24일) 각각 장로 피택자 부전, 안수직자 피택자, 권사 피택자 교육이 10월 15일(토요일) 초 26분 매주 토요일에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합니다. 하나하나의 비밀을 맡을 그리스도의 일꾼(전 4:1)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온전히 깨어지도록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장로·안수집사·귀사 피택자 명단은 6면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갈 3:27)

끝까지 영혼을 품는 사랑으로 학습·세례까지

많은 분들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있습니다(눅 15:4). 그러나 한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습니다.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전도한 영혼들을 섬기고 돕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요 13:1). 어떤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 6:3-5)에 온전 신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학습과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식에 참여하여 주님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습니다(고전 11:25, 26). 때문에 학습과 세례는 온전한 신생활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학습은 만 14세 이상, 교회 등록 후 6개월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학습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 학습 그리고 등록을 모두 받고 믿고 행하는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마 28:19) 하나님의 백성 됨을 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아세례를 통한 입교와 개종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새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되돌아가 통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한 가정에서 있는 것으로 전도의 사명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운명을 지키면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속까지 배불었던 것(행 16:27-33)처럼, 끝까지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학습과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요한 4:19)

*학습, 사례 교육 안내는 8면에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13일)은 교회주변 전도의 날입니다.
오전 11시까지 본당으로 오셔서 예배함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10일)
제5차
CMTC
훈련 안내
(둘째 날)

제1강 세계선교의 흐름과 영적상황	(오후 6:10~7:00)	갈릴리출
제2강 타종교 이해 및	(오후 7:10~8:10)	갈릴리출

정교 카톨릭 (제1교육관 307호) / 회교 (나사렛홀) / 힌두교 (본당 112호) / 불교 (갈릴리홀)
(*제2가 각있는 타종교 이해 30분 종교 권역별 사례발표 30분입니다.)

말씀으로 품성한 그릇 (금요일집회)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2)

9:3).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였느니라”(롬 9:15).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롬 9:18).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롬 10:4).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그ுக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롬 10:9). “성령에 이르러 두 번 두 번 저를 믿는 자는 부귀와 영광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니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호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1-13). 구약에서 사울왕의 신전의 살도 안의 책의 실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즉 그의 불순종이 왕국을 잃어 버리게 만든 것이다. 그의 책임의 결과를 언급하고 있다(삼상 13:13). 하나님께서 이후에 사울에게 관하여 언급하셨다(삼상 15:10).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은 결정적이고 운명적으로 우주 안에 갇혀진 인类的 책임을 말해주고 있다. 신구약에 나타난 바로 제논의 하나니의 견해에 대한 인类的 책임의 실태를 증명해 주고 있다. 인간의 절대적인 책임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밝는 맥락에서 언급하고 있다. 다음의 말씀은 하나니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절대적인 책임이 같이 병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하나는 하나니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다. “그가 하나니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행 2:23a). 하나니의 주권의 책임은 정하신 뜻이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다. 그가 세속에서 인간의 죄악을 만났다. “그러가 모든 자들의 생을 먹어 보 못하 죽었단!”(행 13:46)

2:23b). 또한 같은 맥락에서 “과연 해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하여 하나님의 기쁨 부르는 거룩한 것들을 거서라 하는 이들의 권능과 대토로 이루어지고 예정한 그것을 행하고서 이 성에 오셨나니”(행 4:27,28). 여기에도 모든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려 모인 것이다. 인간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이러한 모순은 예수님을 배반한 유대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22:22).

하나님은 거룩한 토기장이로 설명된다(롬 9: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그릇”이 무엇이고, 또 스스로 선택한 것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 토기장이의 하는 것같이 내게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였나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렘 18:6). 만일 나의 말한 것 만이라도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렘 18:8). “유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줄을 행하여 내 목사의를 정죄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무슨 죄를 하리나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랴”(렘 18:10).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되”(렘 18:11b). 하나님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실 때라도 이것은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미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다(사 63:17).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호소는 허위가 아니었다(사 64:8,9).

신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완전하게 균형잡힌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밀비로서 27장 12 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다. “항상 복하여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주께 감사하라”(셀 2:12). 복을 부인하지,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주를 따르라, 인간의 의지를 말해주고 있다. 삶의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바나나 그 다음 주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언급하고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셀 2:13). 하나님은 주관하시며 인간은 책임이 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관한 완전한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는 하나님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EPHESIAN CHURCH ALIVE WITH THE WORD OF GOD

“(8) And he entered the synagogue and continued speaking out boldly for three months, reasoning and persuading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9) But when some were becoming hardened and disobedient, speaking evil of the Way before the multitude, he withdrew from them and took away the disciples, reasoning daily in the school of Tyrannus. (10) And this took place for two years, so that all who lived in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both Jews and Greeks. ...” (Acts 19:8-20)

Until Paul visited Ephesus, the believers there only knew about John's baptism of repentance, not Jesus' baptism of the Holy Spirit. Paul explained to them that, "John baptized with the baptism of repentance, telling the people to believe in Him who was coming after him, that is, in Jesus" (19:4). These people believed in the Word of God, but did not know anything about their need for baptism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Once Paul shared the good news, twelve men accepted it and received Jesus' baptism. Afterward, he prayed over these men and laid his hands on them and the Holy Spirit came on them. They experienced wonderful miracles, "speaking with tongues and prophesying" (19:6). Paul continued witnessing the gospel for about three months in their synagogue. Many more accepted God's Word and many did not, which is usual. However, when some "were becoming hardened and disobedient, speaking evil of the Way before the people, he withdrew from them and took away the disciples, reasoning daily in the school of Tyrannus" (v. 9). He taught at this school for two years, preaching nothing but the Word of God.

Great majorities of today's churches emphasize morality and chooses to focus on how to live successfully, rather than preach the Word of God. I remember when I first came to Choong Hyun that many people were against my preaching Christ only. People told me that everyone already knew about the cross, and that I should focus on how to live the Christian life. Preaching Christ brings out the evil in people, but it also can change them. After two years of Paul's preaching, many believers' eyes spiritually opened, and they confessed their sins and changed their evil ways. They were able to see their wrong doings. Too many Christians do not believe in the true Christ, but rather in a cultural Christ. Listen my dear friends; the Word of God is the only truth. Human nature is sinful and uncontrollable. Only the Word of God can change human nature. Humanity loves evil. Self-pleasure, greed, and pride are things that affect everybody, just like the Ephesian church. They gathered to pray for worldly things because they did not know that much about Jesus, and nothing about the Holy Spirit. Paul preached Jesus and they received the Holy Spirit, and miracles began happening.

In order for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to take effect, someone must plant and water it. Paul did not talk to the believers in Ephesus about evil, purity, and humanity; he just preached the gospel, "reasoning and persuading them about the kingdom of God" (v. 8). His words were all about Jesus. Paul taught the Jews and Gentiles nothing but the Word of God. Many believers accepted it and many rejected it. "so that all who lived in Asia heard the word of the Lord, both Jews and Greeks" (v. 10). For the past seven years, I have preached nothing but the Gospel. Many people reject my preaching, asking me to talk about how Christians can live in this world nicely and happily. The church has to plant and water, in other words preach the word of God! Jesus sai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the whole world for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t. 24:14). The church has the responsibility to preach the whole word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The important thing is to focus on planting and watering God's Word. Its growt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Holy Spirit.

As Paul preached the Word of God, the Ephesian church listened and obeyed it. They accepted Jesus' gift of the Holy Spirit, and when they

did, they started to grow. Miracles began to happen. Diseases left, evil spirits went out, and Satan's ministry started to crumble. A place filled with darkness received the Light that shines eternally bright. All their evil practices came into view, and they saw it and repented. Their lives started to change. They realized their idolatry in their worship of tradition, culture and customs. They had believed in the power of evil, practicing magic, "And many of those who practiced magic brought their books together and began burning them in the sight of everyone; and they counted up the price of them and found it fifty thousand pieces of silver" (v. 19). Even in today's market, that is a lot of money! The depth of their sin was great, but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and piercing as far as the division of soul and spirit, of both joints and marrow, and able to judge the thoughts and intentions of the heart" (Heb. 4:12). Amen! The Word of God taught them what is wrong and what is right. They believed in the gospel of truth, and started practicing their faith, confessing their sins and growing in the Lord.

The Word of God overcomes all evil. It prevails in the heart of each believer. As the Word of God grew in the Ephesian's hearts, the power of evil began to diminish. The Word of God was destroying the love of material things, traditions, magic power, hypocrisy, and selfishness. The shine of the gospel was showing everyone his or her wrong doings. No longer was the earth and money boss, or even themselves, they realized the only boss is the Word of God. As the Word of God grew in their hearts, they became witnesses. Great leaders started to emerge and go out to spread the good news (v. 22). When the Word of God is preached, the ministry of the church changes, the member's lives change, and the foundation for growth prevails as a result of the fruits of the Holy Spirit. 1 Thessalonians 2:13 says, "For this reason we also constantly thank God that when you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ou heard from us, you accept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for what it really is, the word of God, which also performs its work in you who believe." The philosophies of human beings cannot compare to God's way of thinking. "Is not My word like fire?" declares the Lord, "and like a hammer which shatters a rock?" (Jer. 23:29).

Have you prepared your heart for hearing the gospel in this sermon? Did you pray before coming to church today? After hearing God's Word, do you really practice it in your life? After Jesus died, resurrected, and ascended, the acts of Christians came into play. Luke wrote a whole book about the early Christians, describing how the Word of God, once planted and watered in humble human hearts, grows, prevails, and witnesses to the world. I am asking you, i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as evident in your life as it was in their lives? Is the Word of God living in you? Are you truly alive because of the Word of God, or are you just a dead person walking? I sincerely hope Jesus has transformed you, and that you are following His directions, living everyday for His glory because if the living Word of God has not penetrated your heart, then you are heading for eternal suffering. Right now, your woes are short-lived, but after this life, they become eternal without Jesus. My friend, you need Jesus, the Son of God, the only One who has the power and authority to make you eternally alive through His Word. 📖

말씀이 살아 있는 에베소 교회

⁸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⁹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¹⁰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행 19:8-20)



김성만 목사

바울이 에베소를 방문할 때까지 그곳에 있던 신자들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요한이 베퀴 세례뿐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 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행 19:4). 이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지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하자 열두 사람이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했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행 19:6). 그 후 바울은 같은 회당에서 석 달 동안 지속적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나 흔한 일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음이 강퍅해서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십자가의 도를 비방하자,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게 됩니다(행 19:9).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두 해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참 진리의 말씀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권하기보다는 도덕을 강조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현현교회에 부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알고 있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법이나 가르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 속에 감춰져 있던 악한 것들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이 복음뿐입니다. 2년 동안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후 많은 신자들의 영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행실에서 돌아섰습니다. 비로소 자신들이 행한 많은 잘못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신자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것은 문화가 만들어 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입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악하고 계몽대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런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악한 것을 사랑합니다. 자기만족, 탐심, 우월의식 같은 것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입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들을 간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더구나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야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말씀을 심고 물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악이라든지 순수, 인간다움 같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만 설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의 설교는 모두 예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쳤습니다. 에베소의 많은 신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그것을 거부한 신자들도 역시 많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행 19:10). 지난 7년 동안 저는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을 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설교를 반박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한결같이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는 방법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를지 기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물을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날이 곧 오리라”(마 24:14). 교회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책임지실 일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변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선물이 성령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곳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악귀가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이 무너져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두움이 지배했던 곳에 찬란한 빛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행했던 악한 일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그들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회개의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통과 문화, 관습을 중시하는 우상 숭배자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그들은 악한 권세와 무속을 의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오만이나 되더라.”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로 환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그들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히 4:12).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참 진리의 복음을 믿고 나서, 믿음을 실천하고, 죄를 회개하며, 주 안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악을 물리칩니다. 악은 모든 신자들의 마음속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자라가기 시작했을 때, 악의 세력은 쇠퇴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대한 애착, 전통, 무속, 위선, 이기심 같은 것들을 하도 남김 없이 부수뜨렸습니다. 복음의 빛은 각자 자신들의 죄를 보게 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이나 돈, 자기 자신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수록, 그들은 중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위해 파송되었습니다(22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의 사역이 변하고 개인의 삶이 바뀝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테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인간의 철학 따위는 감히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르려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乎”(렘 23:29).

오직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은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에베 20절 오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마음에 살 속에서 실천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수종하신 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누가는 책 한 권을 초대 교인들에 관한 이야기로 채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의 마음에 심기고 뿌리내리고, 자라고, 풍성해지고, 전 세계로 퍼나라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초대 교인들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성령의 열매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살아 있습니까? 아니면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입니까? 진심으로 자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길,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의 지시대로 따라가며, 매달매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꿰뚫고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당장의 고통은 잠시 후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끝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고통 받으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만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

수요1부 예배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 (행 2:36-38)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다. 오직 이성, 평화, 복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 소위 모든 종교가 혼합되고 있다. 이렇게 혼란한 때에 갈릴리 아무었던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가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게 한다. 베드로의 설교는 직설적이다. 단순한 설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전하고 있을 뿐이다(행 2:36).

구원의 설교는 그들의 마음을 열었다.

베드로의 설교는 구원의 설교였고, 우리의 마음을 찢는 설교였다(행 5:33). 베드로의 설교는 즐겁게 기분을 맞추어 주는 설교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말한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은 감당 하리요”(고후 2:15,16).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한다.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적당히 섞여서는 안 된다. 예식과 전통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사 1:13). 예미미야는 예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렘 7:4). 우리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외식적인 인격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딤후 3:5).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만을 좋아한다. 그러나 구원의 설교는 마음을 찢으며 회개할 것을 요구한다.

어떠한 진리가 그들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가.

베드로의 설교에는 참 복음의 진리가 있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생명의 진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은 모든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찢었다. 죄를 지친 한 단 선지자를 보라.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죄를 범한 다윗을 향해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삼사 12:7). 단 선지자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하였다. 이처럼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찢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성을 가진 우리를 괴롭힌다(롬 7:13).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과 무정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찢을 때 우리는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니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라”(롬

2:4). 자존심 때문에 말씀의 풍성함을 멸시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생명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 “내 평행에 가는 길...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찬 470:3).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팔짱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바지께서 날 지키시리나...”(찬 478:3). 이 세상의 평화를 찾으려하지 말라.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뵈옵나니...”(찬 474:3). 말씀이 우리를 찢을 때,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말씀 앞에 회개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죽이소서, 온종의 말씀으로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처럼 영생의 것을 찾으으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약속하신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골 3:4).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찢을 때 애용하여 회개하자(사 12:10).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

베드로의 설교는 성령님이 주관하는 설교였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행 2:38). 우리는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 다(고전 6:19). 내 것은 하나도 없고,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의 삶은 감사로 넘치게 된다.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는 길은 의로움의 길이고, 때 맞고 죽을 줄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은 고백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빌 1:21).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에 가능한 고백이었다.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이 성령의 복을 받는 성도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알지키니와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롬 6:6).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게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내 회개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구원의 복음은 이루어진다. 발파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우리도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한다.

우리는 온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의 죽음의 기쁨을 기념하(마 26:11) 주의 죽음의 기쁨을 전하(고전 11:26). 주님을 전하는 온종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아무도 찾지 않은 땅 끝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자. “주어 내 입이 열리는 그 때 구원의 복음, 진리만을 전하게 하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장로 칼럼

새 생명의 환희와 기쁨이
를 넘치는 새가족부

권영목 (새가족 양육부장)

은 교회가 교회주변 전도에 힘쓰고 2,5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거룩한 열정으로 떨쳐리는 2005년을 보내고 있는 중이다.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역에 매진하는 모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순종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부서가 바로 새가족운영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 복음으로 전도되어진 한 영혼을 가장 분명하게 십자가 복음으로 세우며 주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그들을 양육하는데 철별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이 점점 늘어나면서 제3회 새가족위원회 소속의 새가족부서는 이를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양육하고 도와 나가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지난해 하반기에 이를 당회장 직할의 새가족 운영실로 확대 개편하고 새가족 양육부와 새가족 등록부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새가족부는 우리 교회에 첫발을 내딛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부서이기에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타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출현 회회는 다른 교회와 많이 다른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세심한 교육을 필요로 한다. 사실 다른 교회와 다른 교회로 나가는 그 자체가 문제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도로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기며 그저 말씀대로 하고자 애를 쓴다.

2004년에도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한 인원이 2,981명이고 금년에는 전도위원회의 1인 1명 전도 및 교회주변 전도로 5,000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새로 들어오는 교인들을 어떻게 교회에 잘 적응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있어 회헌 통한 방법이나 회화론 행사나 선물 공세를 펼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보다 철저하게 개관도 중요은 일뿐이다. 우리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방법이고, 행사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미 선교회에서 확인했고 교회 주권전도에서 행해오고 있는 일인바,

새가족양육부는 다른 교회에 출석하다 나온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의 특징과 소개를 해 주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6개월간의 새가족 양육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가족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통신으로 공부하도록 하고 있어 6개월의 새가족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교구별로 교구 새가족 양육부장을 세워 새 가족을 상담하며 보살피고 있다. 하나님께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세심하게 역사하시기를 십자가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감동적인 일들과 함께 새가족부가 가장 신망을 쓰는 것은 처음부터 이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복음의 기초를 확립하게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새로 등록하는 새 가족 가운데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도 있고,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중 낙심하여 쉬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는 점에서 같기에 더욱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그들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는 분명하다. 십자가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복음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 가나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는데 있어서 모든 새 신자들의 그 첫 걸음이 우리 새가족부에서 시작된다.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적인 것들과 세속적인 안락함을 주는 것이 분명 교회는 아니다. 이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전하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만족이 있는 사임을 알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주)간중에는 설리는 새 가족들의 간증들이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환희와 감동과 감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을 보아서도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새 가족들의 간증을 보며 우리 총현의 식구들은 자기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된다.

교회의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새가족부는 어느 부서보다도 중요한 부서이다. 주님이 홀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신 귀한 영혼들이 주님의 초청과 생령님의 이끄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한 영혼에게 집중하시는 주님의 모든 새 신자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며 주어야 한다. 새가족부의 교사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늘 깨닫고 매일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아가며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기를 힘쓰고 있다(마 11:24). 충현의 성도들은 간사가 전도해 온 새 가족들을 새가족 양육부만 맡기지 마시고 믿음의 성관한 때까지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매주일 주일 대예배와 새 가족 집회에 참석하도록 권면하는 일까지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모두가 한 가족이 되었다.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는 새 가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경륜을 생각하며 결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뿐이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유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이라”(엡 3:6).

내 안에 가득한 나

주님개선 이번 선교를 통해 나를 낮아지고 깨지도록 훈련시켰다.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선교를 가라는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나의 처지와 상황이 허락지 않았고 나 또한 준비되어 있지 못한데 어떻게 가느냐며 나의 의와 주장을 앞세웠다. 나는 순종치 않고 나를 내세웠지만 주님개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셨다. 교회의 한 선생님께서 “누구나 준비되어 있어서 선교를 가는 것이 아니다. 준비가 다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깊이 뉘우쳤고,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를 포기하려고 한 것이 어리석었음을 깨달았다. 선교를 가겠다는 비전을 가지게 되자, 주위의 상황과 처지가 갈 수 있는 쪽으로 모두 해결되었다. 진정으로 감사했다. 준비모임을 가지면서 힘들어서 나약해지며 두려워했지만 기도와 기쁨으로 하면 어느새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이 생겼다. 오직 기도밖에 없었다.

사역을 하기 위해 발을 내디딘 곳은 사원 근처의 마을이었다. 아이들이 있기에 다가가려 하자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웃으며 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들어

가 버렸다. 우리는 아이들이 나오기를 잠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할머니 두 분이 오라고 손짓하며 무어라 말씀을 하셨다. 말을 알아듣지 못한 대다가, 할머니들의 불교 분위기나는 옷차림 때문에 나는 의심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오히려 우리를 내어쫓으려는가 보다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우리에게 학교가 있는 쪽으로 가면 아이들이 많고, 집에 들어간 아이들 또한 곧 올 테니 그리로 가라는 것이었다.

너무나 죄송했다. 나는 또 내 눈으로 판단하고 경험으로 행한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에 들어서자 아이들이 멀리서 나와 우리를 바라

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다. 학교 선생님께 잘 못하는 영어로 우리가 교실에 들어가서 사역을 해도 되겠

느냐고 요청하자 흔쾌히 승낙했다. 교실에 들어가 이름을 물어 보고 찬양을 하고 전도

지도 나누어 주며 주님을 전할 수 있었

다. 정말 감사하게 기뻐다. 나는 내 판단대로 할머니를 의심했던 것을

회개했다. 또 내가 나를 내세워

생각했구나. 내가 내 중심에

가득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

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

놓지 못한 것을 깨닫고 회

개하였다. 이후 주님의 인도

도 속에 무사히 사역을 마

칠 수 있었다.

총력 교회주변 전도

교회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 총력 교회주변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무척 추웠던 겨울이 끝나가면서 봄 기운을 느낀던 날, 온 교인들이 함께 나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전하내 내 마음에도 봄이 왔습니다. 계속 전도하겠습니다.

♥ 처음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혼자서는 두려웠으나 함께 나가 보니 나도 전도할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돌아오니 마음에 힘이 되자 모를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 지정된 지역에서는 하는 초초전도이기에 집에 찾았을 때 사람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찾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언제가는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그 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라는 전도훈련 때의 말씀이 생 각났습니다. 과연 복음전도는 가능하였습니까.

♥ “이웃의 총력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하며 문을 두드리자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을 얻습니다.”라며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아예 다른 동네에 가서 문을 열어달라만 안 열어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주변 전도의 좋은 점이었습니다.

♥ 몇 사람을 만나 전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하면 주님의 역사나 나타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 담혀진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할 집을 정했으니 그 집을 놓고 계속 기도하여 나날 생각입니다.

♥ 교회주변이 온통 우리 전도대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즐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울까 하는 생각을 하며, 더욱 열심히 기도하여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선교지에 가서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루하루

열심을 다하여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이 준비해두신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하루는 농촌마을에서 전도를 하였습니다. 눈이 나빠 전도지를 잘 읽지 못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께 전도지의 말씀을 읽어주고 주님을 영접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잠시 생각하며 주님을 영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저의 마음 속에는 ‘부족한 내가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함께하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사랑처럼 저 역시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삶을 돌아볼 때 많은 욕심과 썩어질 세상 것을 바라보았던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서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까닭이 나에게 있음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요 13:1).

이진수(집사, 직원2팀)

나 같은 죄인을

사역 3일째, 전도를 위하여 어느 마을을 갔을 때 마당

이 넓고 부유하고 화목해 보이는 6명의 가족이 눈에 들어왔으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내 생각에 쉽게 지나치려는데 갑자기 그 가정의 가장이 일어나 서두르며 우리를 맞이했고 아주 기쁘게 전도지를 읽으며 온 가족이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그래 우리는 보내주셨을 때 믿음으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큰 힘을 얻어 더 열심히 전할 수 있었다.

사역 4일째, 어떤 낯자를 보았다. 아주 지저분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다리도 못 쓰고 글자도 모를 거야.’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주님의 예비하심을 내가 제한하지 말자는 마음을 먹고 다시 용기를 내어서 다가갔다. ‘이것을 읽어보세요.’ 하며 전도지를 전했을 때 희색이 만연한 얼굴로 큰 소리로 읽고 기뻐하는 그 낯자의 모습에 주님이 예비하심을 내가 제한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 났다.

나 같은 죄인을 복음의 사역자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음성에 늘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한다.

김월자(집사, 직원2팀)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기간	팀	팀장	기간	팀	팀장
4월 4일(월) - 4월 12일(화)	8교구 3지역	박승길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4교구 3지역	이정택
4월 5일(화) - 4월 15일(금)	12교구 2지역	조문수	4월 6일(수) - 4월 15일(금)	11교구 1지역	김진술
4월 5일(화) - 4월 15일(금)	1교구 3지역	구원식	4월 7일(목) - 4월 16일(토)	13교구 2지역	강신현

◆ 전주주 도착한 선교팀

기간	팀	팀장
3월 28일(월) - 4월 5일(일)	11교구 6지역	박성준
3월 28일(월) - 4월 5일(일)	15교구 5지역	조성훈
3월 28일(월) - 4월 7일(목)	직원4	서준성

◆ 이번 주 출발하는 선교팀

기간	팀	팀장
4월 11일(월) - 4월 20일(수)	13교구 6지역	강진택
4월 12일(화) - 4월 21일(목)	3교구 2지역	김희선

제38대 장로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최차용 8 2610	신선길 4 92-49	문효식 4 87-653
유상태 18 80-268	박상대 2 4115	김규식 6 88-866
신광철 4 83-73		

제18대 안수집사 피택자(나이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한호철 15 89-575	송순호 12 94-502	정금수 18 97-144
강천석 7 96-540	박춘교 8 91-1107	이민호 14 91-735
이창우 17 4641	이병근 4 97-710	전삼진 1 88-706
노은영 17 92-62	이선만 11 79-117	김낙홍 13 84-1348
조흥연 2 84-40	최광현 3 95-190	최진성 15 84-1239
한현석 3 98-1183	최홍길 6 85-432	김규용 16 94-262
최우근 5 92-433	박준은 5 86-455	김종규 9 82-835
노정화 4 81-729	이양호 10 86-4	이근호 14 85-636
채홍표 4 87-778	정문호 9 84-247	한용배 8 91-1005
정창원 1 80-623	박영섭 7 94-360	최홍섭 15 81-20
장석창 5 93-1102	변창대 8 94-954	송현천 6 87-833
김창진 17 92-105	안세현 2 96-739	전진국 11 86-303
김상열 18 86-566	김상화 16 90-704	김병수 13 89-1489
박명호 7 2003-0231	김영록 12 79-112	정재영 18 95-841
김동철 2 90-318		

제46대 권사 피택자(가나다순)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고효영 17 89-1236	김경숙 7 96-540	김병희 14 5363
김복수 10 97-909	김부영 15 4119	김성자 2 93-1271
김애자 3 98-1183	김연단 16 85-883	김영남 17 89-651
김옥자 15 87-747	김유정 2 95-1464	김일순 12 5346
김정수 6 88-153	김정운 4 89-252	김춘자 1 83-617
남상인 16 2087	노혜정 12 90-401	박금식 14 84-740
박숙경 18 87-113	박숙희 13 82-739	박영자 18 92-1004
박옥자 2 86-449	박차화 8 81-296	박태순 3 93-283
박현순 14 85-636	변경심 18 82-378	서혜경 15 86-293
손선례 14 94-718	심금수 6 82-108	오영정 11 85-578
신성례 18 3199	안순옥 5 92-2308	오정림 3 88-587
유옥자 11 83-403	윤자옥 6 89-1114	윤효남 2 99-247
이경자 7 98-609	이분옥 5 95-120	이상숙 12 90-759
이슬연 8 92-303	이정화 15 94-545	이종희 4 94-136
임창진 10 93-127	장웅숙 13 88-324	장철지 11 87-521
전옥순 1 87-81	전춘옥 1 85-794	정애화 9 1409
정옥화 1 84-612	정정금 13 86-584	정혜진 18 88-151
조윤숙 4 92-770	주순희 2 89-674	주영희 4 88-933
최양숙 17 4667	최영실 10 2002-0271	최은희 1 2787
최정화 9 84-966	한금례 16 2621	함화자 9 92-652
홍은기 3 89-825	황명숙 7 95-1527	황병자 5 84-431
황은선 7 83-42		

*피택자는 (정로)피택자는 부부동반) 오늘 저녁 찬양예배 후

배다나눔에서 피택자교구 개강예배를 드리오니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저에게는 4살 난 조카가 있습니다. 친구 언니의 딸인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이름을 기억해 조그마한 입으로 뱀뱀 이모라고 부르며 나를 반기는 조카를 보면 얼마나 예뻐서 모릅니다. 친구 집에 가면 처음엔 어색해하면서 주위만 맴돌다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자신의 절친한 친구로 삼아 줍니다. 이제 막 말문이 트인 때라 그 조그마한 입에서 언제나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자신이 즐겨 보는 만화 줄거리에서부터 자신이 아끼는 물건 이야기, 그동안의 근황 등 끊임없이 입을 놀려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무리 귀를 세우고 집중하여도 그 이야기 중 절반 이상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단어의 선택이나 배열, 문장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말들만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난해한 말이라도 자꾸 듣고 싶어집니다.

친조카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를 바라보며 잠시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인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도 나는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해 주는'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습다. 자꾸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나에게 요구한다는 생각에 귀찮을 때도 많고 짐으로 여길 때도 많습다. 그렇지만 조카의 모습을 보며 나는 나의 모습이 내 앞의 조카의 모습보다 더 어리고 부족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가진 것이 없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 물질, 시간, 달란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습니다. 내 것이 하나, 둘씩 잃어져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내 털갈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조카가 침을 온통 바른 과자를 내게 주는 것처럼, 서론 순가락질로 이리저리 훑어 붓고 한 방울 남은 국물을 내게 먹여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서론 나의 드리는 손길 그 자체를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내가 조카에게 자꾸 먹여 달라고 보채지만, 나의 마음은 조카의 과자를 훔쳐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런 조카의 모습을 좀 더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두 배는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조카에게 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일을 완벽하게 해 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나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한 걸음씩 아버지와 동행하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병희 (대학부)



새가족과 함께

계속 눈물이 납니다

40년 동안 불교에 심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천주교회에 권사로 있는 친구에게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친구는 얼굴을 보고 싶으면 주일엔 교회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 얼굴을 보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교회에 나와 등록을 하였고, 새가족부 양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로 지금까지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친구 권사님 4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줬고, 또 집에 오셔서 일해주시는 어머니도 몇 년을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다고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도 모두 갑자기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과 찬송을 들으면 뭐라고 표현할 수 없지만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찬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을'을 좋아합니다. 기억에 남는 말씀은 '자기를 버리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이 땅에서 미련 없이 천국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박명희 (새가족부)

교회 탐방 59 자원봉사부

은총의 열매, 자원봉사

지난 4월 5일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흥천동산에서 나무 심는 일과 주변 정리에 많은 열을 올렸다. 교회는 지금 자원봉사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 그것은 자발적 봉사다. 애초에 모든 것을 공금이나 이가 그것을 쓰시겠다고 어떤 용량 내어 드리는 것이 성도의 도리다. 성도들이 드리는 귀한 헌신의 모음을 높이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부를 방문한다.



다. (양기수 안수집사)

봉사에 임하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는?

봉사를 할 때는 주의인식을 갖고 해야 합니다. 기도원과 동산에서는 2월부터 계속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작 봉사를 하고 보니 진작부터 해야 할 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영 안수집사)
교회 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내 것이라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충이

자원봉사부로 재조직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교백하는 충의 모든 성도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시간의 십일조를 바쳐 교회의 모든 시설물을 주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본당 4개동의 건물과 지어 주차장, 흥천도원, 흥천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모되는 형편입니다. 이에 성도들이 자기 집을 돌보듯 주님의 몸인 교회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권영국 장로)

자원봉사부의 운영은?

19구역의 미화봉사와 별도로 모집하여 운영되는 달란트 봉사부 구분입니다. 봉사는 반드시 자발적 의무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기간이었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에 따라 봉사에 참여합니다. (김규석 안수집사)

봉사의 대상 구역은?

본당 및 교회학교 예배실과 부속시설물, 각 건물의 내부 복원과 화장실, 지하 주차장과 부속 시설물, 교회 내 외단 및 교회 주변, 흥천도원과 흥천동산을 그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달란트 봉사는 행정, 전산, 전기 및 기계, 음악 및 영상, 영신 및 조경, 상담관리로 구분합니다. (김규석 안수집사)

자원봉사부의 조직과 진행은?

미화부 19개 팀에는 교회에서 임명된 팀장이 있습니다. 팀장의 책임 하에 모든 성도들이 자원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을 받습니다. 2월과 3월에는 자원봉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직원부 중심으로 매우 필요했던 지리별 본당 정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권사회에서는 수요 및 영성훈련 후 배나나눔과 갈라리움을 청소하였습니다. 이런 경험을 살려 4월부터 전 성도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봉사를 하게 됩니다. 누적인 봉사를 기록으로 보관해 나갈 생각입니다. 봉사 아실 문단 다양한 채널을 통해 참여하시면 됩니다. (박종용 안수집사)

자원봉사부의 활동으로 교회는 물론 개인이 얻는 것은?

몸으로 드리는 봉사를 통해 교회 사랑을 회복하고, 나아가 공동체의 신앙 회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이런 유익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교회의 문지기"로만 있어도 영복이라는 선진의 고백처럼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의 신앙 성숙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나를 끼치는 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이순자 권사)

최선을 다하는 봉사의 정신이 필요함입니다.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의 불꽃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왕윤자 권사)

연세 드신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다 잘 해 오셨지만 목사님도 체제가 바뀌었다고 봉사를 그만 두지 마시고 이들과 같이 봉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윤자 권사)

성도들에게 드리는 부탁의 말씀은?

각 기관에서 방을 사용하신 후에는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권영국 장로)
자신이 능력에 따라 참여하는 봉사를 하십시오. 먼저 지원을 얻어 봉사부에서 성도들에게 역할을 맡아 도와 드립니다. (김병영 안수집사)

청소도구 수령과 반납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고서와 출석부 제출에도 착오가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종용 안수집사)

기도원과 동산 봉사에 기본 마음으로 지어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어떤 헌식에 동산에 오실 때는 음식물이나 꽃을 갖고 오시는 일을 자제해 주십시오. (이영영 안수집사)

자원봉사는 아름다운 교회의 열매입니다. 타성에 젖은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할 각오가 필요함입니다. 지금이 그 시작입니다. (양기수 안수집사)

봉사의 시작은 강한 권면의 성경을 따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오직 자원봉사가 되리라 기대합니다. 몸으로 교회를 사랑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훈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초신자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박종용 안수집사)

이런 봉사는 무엇보다 자발적 의무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오직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김규석 안수집사)



자원봉사부 실행위원들의 방문 교육과 함께 있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청소도구를 들고 현장으로 떠날 수 있는 사람들처럼 보인다. 성도들을 봉사의 현장으로 인도할 만반의 준비를 끝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를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시기를 소망한다. (권진실)

▲ 지난 4월 5일 안수집사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이 흥천동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다름 주일 찬송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이 찬송은 아라벨라 캐더린 행크(Arabella Catharine Hanky)의 찬송으로 조지아 부스(Josiah Booth)가 작곡해서 붙였습니다. 윌리엄 하워드 돈(William Howard Doane)의 곡이 현재 전해져 불리고 있다.

1절은 주 예수의 크신 사랑 축하는 영원을 비추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예수를 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찬송을 시작하고 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천국에 관한 내용으로 평생에 통틀어 말할 줄도 두려울 것을 요청한다.

후렴은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의 말씀 평생의 든든한 발판을 두어 주고 돌 줄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랑이 바로 참된 구원이 되기 때문이다.

2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그 사랑을 자주 되새기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심중에 늘 살아서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3절은 우리에게 사랑을 구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고통중에 있는 자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다. 그 사랑이 늘 우리를 위한 것이다.

4절은 우리는 세상의 영광에 도취되기 쉽기 때문에 세상 헛된 영광을 좇는 눈에는 부끄러운 줄을 알게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참된 영광까지 비추고 아무도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 우리의 영광을 계속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것이다. 이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이 나아가자.

(찬양위원회)

새·가·족·을·한·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009	김희의	18 천1부	권순하(10)	1034	조한나	19 천1부	조종욱(10)	1059	김희주	19 천1부	김수연(14)
1010	김순보	14 천2부	권순하(10)	1035	김순보	10 천2부	유영선(10)	1060	하현진	19 천1부	김영민(15)
1011	정지훈	2 천2부	천순도(10)	1036	노은비	6 천2부	박민혜(10)	1061	김민호	19 대학부	임영미(7)
1012	송재우	9 천2부	송순하(10)	1037	이규모	1 천2부	김재현(10)	1062	김민호	19 천1부	박정재(10)
1013	정 진	9 천2부	박재현(10)	1038	박종현	19 고등부	김영민(10)	1063	오상현	19 대학부	노은비(17)
1014	김영주	17 천2부	이영재(16)	1039	김종현	19 고등부	김규석(16)	1064	박종현	19 대학부	김은실(7)
1015	박진호	9 천2부	표영하(16)	1040	김보미	19 대학부	최호준(16)	1065	박성식	2 천2부	박도연(10)
1016	이영관	3 천2부	천정환(10)	1041	홍준기	17 천2부	구영환(16)	1066	김종현	19 대학부	김준호(11)
1017	김영희	16 천2부	정미하(16)	1042	김영준	2 천2부	구영환(16)	1067	고민환	19 고등부	이진규(8)
1018	최희연	19 천2부	고유희(18)	1043	유성준	1 천2부	박재현(16)	1068	이영환	19 천2부	김우현(10)
1019	이미희	5 소양부	조종하(10)	1044	김종현	19 대학부	김영환(17)	1069	정종현	19 천2부	김우현(10)
1020	정복순	5 소양부	박희재(10)	1045	신준연	10 천2부	김달구(10)	1070	이영환	19 천2부	윤지현(13)
1021	최희훈	19 천2부	박희재(11)	1046	이승구	19 천2부	최호준(17)	1071	황창현	19 천2부	김성철(9)
1022	이예나	19 대학부	김재현(10)	1047	김민호	19 천2부	김민호(11)	1072	황창현	19 고등부	김효순(10)
1023	조종민	19 천2부	김종현(18)	1048	이영환	19 천2부	박영환(19)	1073	김종현	19 천2부	유복성(10)
1024	정종환	10 소양부	박희재(10)	1049	최종현	6 천1부	김진환(16)	1074	이종현	17 천2부	천(10)
1025	정종환	12 소양부	박희재(10)	1050	이영환	6 천2부	이희재(16)	1075	최종현	19 대학부	문민환(10)
1026	김지현	18 천2부	김재현(16)	1051	이영환	6 천2부	이희재(16)	1076	김영환	19 대학부	지연호(10)
1027	김진현	19 천2부	김진하(19)	1052	김재현	5 천2부	김효환(16)	1077	황창현	1 소양부	황정민(10)
1028	김영환	19 외선부	박희재(10)	1053	김민호	19 외선부	김재현(16)	1078	이 은	8 천2부	이영미(14)
1029	이영숙	9 천2부	이영환(19)	1054	이영환	19 외선부	김재현(16)	1079	유성준	19 천2부	이영미(14)
1030	박종우	19 종동부	이영환(14)	1055	다 익	19 외선부	김재현(16)	1080	김종현	19 천2부	노은비(10)
1031	윤정진	19 종동부	김재현(14)	1056	권민호	13 천2부	이영환(19)	1081	주진민	8 천1부	주희영(11)
1032	김영환	19 천1부	이영환(16)	1057	박성식	19 천1부	최호준(16)				
1033	조종민	16 천2부	양재현(16)	1058	김영환	19 천1부	유재현(16)				

※ 교회헌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교 회 소 식

별 세

1. 백도품 은탁권사 장영수 집사의 모친, 서정숙 집사의 시모, 18교구 삼강구역/5월 분회, 7일 장례

주일 식당 이용 안내

신성한 예배를 위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시간 : 매주일 오후 2:40까지

◆ 전도회 임원 영성 훈련

일시 : 4월 21(목) 오후 7시 30분
장소 : 갈릴릴움
대상 : 각 전도회 회장, 부회장, 서기, 회계, 전도부장
강사 : 류병복 목사 외

◆ 중헌전도대원 훈련

일시 : 3월 16(수) ~ 5월 4(월)수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30
장소 : 배다니룸

2005년도 제2차 학습세례식 안내

날짜	시간	학습자	장소	세례자,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례자	장소
4월 10일 (오늘)	1교시 15:00~15:50	성경개요 (최종철 목사)	교육관 309호	교회론 (장 훈 목사)	교육관 304호		
	2교시 16:00~16:40	기독론 (김익환 목사)	교육관 309호	구원론 (이희석 목사)	교육관 304호		
4월 17일 (다음주일)	1교시 15:00~15:50	기독교개요 (임택덕 목사)	교육관 309호	세례란? (하종철 목사)	교육관 304호	유아세례란? (안지현 목사)	교육관 301호
	2교시 16:00~16:40	문 답	교구별 장소	문 답	교구별 장소		
4월 24일 (주일)		성인 학습 - 세례식(저녁 찬양예배, 분당) 오후 4시 30분까지 입실바람		유 아 세례식 (오후 3시, 갈릴릴움) 오후 2시 30분까지 입실바람			

◆ 2005년도 상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시 : 3월 27(월)요일 ~ 7월 3(일)요일
시간 : 오후 3시 ~ 4:30
장소 : 제교목관 207호

◆ 정로 - 안수집사 및 권사 파택자 교육

일시 : 4월 10(월)요일 ~ 10월 15(일)토
매주 토요일 오후 3:00 - 5:00
장소 : 정로 파택자 (선교 5층 회의실)
안수집사 파택자 (분당 1128)
권사 파택자 (배다니룸)

◆ "한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교회주변 전도의 날)

일시 : 4월 13(수)요일 오전 11:00
대상 : 전 교인 (교구별 여전도의 중심)
진행 : ① 수요부 예배
② 교구별 영성훈련
③ 여전도의 열매화
④ 교회주변 전도 실시

이벤트 주 새끼기도회 담당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16(토)	17(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영훈/권명옥	여국근/이세영	김용국/이정태	고광환/김영환	김익환/박원희	장 훈/정연희	최성규/신동자

예배담당 안내 (4/13~4/17)

날짜	예배	찬 양	사 회 기 도	설 교	
4/13	수요 I	전능하신 여호와여 (호산나 찬양)	류병복	이우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0-26) 고광환 목사
4/13	수요 II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실로암 찬양)	최성규	정호진	그리스도의 마음 (눅 5:27-32) 장영영 목사
4/15	금요일회	소프라노 최경아/비리토 오홍균/장년3부 중창단	김익환		고령 (딤후 3:12-13) 안광덕 목사
4/17	주일 I	(예배 전 찬양)	정성영	이정우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소 교회 (행 19:8-20) 이경준 목사
4/17	주일 II	나의 잘 나기대로서 외스프라노 김혜선(예배 찬양대 지휘)	이창수	김장국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소 교회 (행 19:8-20) 정진호 목사
4/17	주일 III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외스프라노 드리오(아멘 오케스트라)	고광환	전종용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소 교회 (행 19:8-20) 정현민 목사
4/17	주일 IV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외스프라노 드리오(아멘 오케스트라)	이성진	전종원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소 교회 (행 19:8-20) 하종철 목사
4/17	주일 V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은 외스프라노 김지희(별천향 찬양대 솔로리스트)	양재용	임창식	말씀이 살아 있는 예배소 교회 (행 19:8-20) 정현민 목사
4/17	주일찬양	사랑부 중창단/예배다부/실로암 찬양대	조규호	박성명	내게 사는 것이 (막 1:21) 위광환 목사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오전 7:00	본 당
	II 오전 9:00	본 당
	III 오전 11:00	본 당
	IV 오후 1:00(외국인 동시봉역 예배)	본 당
	V 오후 3:00	본 당
찬양예배	오후 5:00	본 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오후 7:30	본 당
금요일회	오후 7:30	본 당
새끼기도회	오전 5:00	본 당

기도원 안내

집 회	시 간	차 량
화요일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출발
금요일회	오후 11:00	금요일회 후 분당 앞출발

구 분	시 간	장 소
영 아 부	I 오전 9:00	선교관 1층
	II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0:50	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2교육관 1층
유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307호
초 중 부	오전 10:30	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교육관 507호
중 동 1 부	오전 9:00	교육관 301호
중 동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중 동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 년 1 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구 분	시 간	장 소
청 년 2 부	오전 12:00	제2교육관 2층
장 년 1 부	오전 12:30	교육관 507호
장 년 2 부	오전 12:30	교육관 407호
장 년 3 부	오전 12:30	교육관 307호
소 망 부	오전 12:15	잔 릴 리 룸
사 람 부	오전 11:00	복자전 지하1층
예배다부	오전 9:00(찬양) 오후 1:00(성경)	교육관 207호
탁 아 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 110호
세가족양육부	오후 12:15	배다니룸
총헌어린이팀	주안교육	교육관 107호
청년장년인교실	주안교육	총헌복지관
국내외전도인교실	오전 11:00	아 벨 홀

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시무장로

김익환	김은호	노광현	오진국	이병학
교구장	교구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임팔선	이 훈	남인수	김영길	김종구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최무집	이창호	차진식	김장남	이종식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안종용	임우현	이갑재	전종용	전종원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이정우	김단용	형원일	한승규	김영수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김환기	원운철	이영수	안동현	황인민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김구형	최종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장대우	박종규	권명복	조종환	배순식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김영달	이윤호	최희송	노영한	박철원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정경진	신상규	고세훈	강철형	김영은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이달용	정철환	김승근	한철주	윤민기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장성진	안석원	김근덕	김창국	김종진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임장식
당회장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박인기	류병복	김영훈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이국근	안창철	나광현	정진호	김종구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고광환	위광환	김익환	장 훈	이현덕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이희식	최종철	하종철	안지현	정종신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알렉산	이성진	조규호	최성규	이세영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이경준	이창수	김준희	윤승인	황건일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정성영	이정훈	김태식	김종훈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 여전도사				
정연희	신동자	윤인숙	한영준	김연식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홍은숙	이옥주	김갑자	안태호	김경연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조옥자	강덕영	최문선	전은희	김영순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김정자	이수경	김경희	이복순	류진희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당회장
한성민	임태주			
당회장	당회장			

■ 전임장로 김성규
■ 전임장로 김승연
■ 선교 사 송환

교회 소식은 길

